

2014년도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논술교육인증서 취득 자격시험(제7회)

Ⅲ. 논술 능력 (50%)

소속 대학: 대학교

소속 학과: 학과

학 번: 이 름:

※ 시험시간: 13:00 ~ 16:00

[유의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연필 사용 금지)
2. 각 문제의 답은 반드시 해당 답안지에 작성하여 문제지와 함께 제출할 것
3. 답안지에 문제 번호를 표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할 것
4. 답안의 분량은 해당 문제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를 것
5. 시험 실시 시간을 어길 경우 0점 처리함

1. 아래의 제시문 (나)와 (다)를 각각 활용하여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해 보시오. (600-800자, 40%)

<제시문 가>

우리는 이제 사욕이나 영리와 같은 다른 어떤 목적 없이도 그 자체로서 높이 평가되어야만 할 선한 의지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선의지는 이미 건전한 상식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현될 뿐이다. 이 선의지의 개념은 다른 모든 행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항상 상위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다른 가치의 조건이 된다. 여기서 나는 비록 어떤 행위들이 이런 저런 의도에 대해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들이 선의지에 위반될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은 선한 행위라고 보며, 또한 각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그들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가끔 가지는 불안스러운 근심이 어떤 내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다.

선의지 자체에서 나온 도덕성은 비록 어떠한 경향성에 의해서 촉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실천적인 사랑으로서 감각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이 실천적인 사랑은 자기보존이나 개인의 사욕 혹은 영리와 같은 경향성 속에 있지 않고 의지 안에 존재하며, 오직 인간 내면의 깊숙한 본성에 자리 잡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하겠다.

<제시문 나>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고찰해 보자. 우선 어떤 종의 개체군에는 매파형과 비둘기파형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전략밖에 없는 것으로 하자. 가정된 개체군의 모든 개체는 매파든 비둘기파든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매파의 개체는 항상 맹렬하게 싸우고 심하게 다쳤을 때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는다. 비둘기파의 개체는 그저 위협을 줄 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매파의 개체와 비둘기파의 개체가 싸우면 비둘기파는 그냥 도망치므로 다치는 일이 없다. 매파의 개체끼리 싸우면 그들은 한편이 중상을 입거나 죽을 때까지 싸운다. 비둘기파끼리 부딪힐 때에는 어느 편이든 다치는 경우가 없다. 또 특정의 경쟁자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해 놓자.

이러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울 때는 상대방에게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언제나 매파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매파형과 비둘기파형 중 어느 것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인가 하는 것이다. 최초에는 매파의 유전자가 압승하여 우세를 점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매파가 되면, 비둘기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리하여 비둘기파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의의 득점 시스템으로 계산해 보면 안정된 비율은 비둘기파가 5/12, 매파가 7/12인 것을 알게 된다. 즉 인간에 있어서 성비가 대략 5:5인 것처럼 매파와 비둘기파의 진화적 안정성의 비율은 7:5인 것이다.

물론 매파와 비둘기파의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으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모델’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수록 그 모델은 자연계의 현실과 유사해진다. 그러므로 단순한 매파와 비

비둘기파의 모델을 발전시켜 좀 더 현실감 있는 모델을 세워보자. 이런 모델 중 하나가 바로 메이나드-스미스와 프라이스가 도입한 ‘보복파’ 모델이다. 보복파는 모든 싸움에서 처음에는 비둘기파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상대가 공격을 걸어오면 보복한다. 즉 보복파는 매파에게 공격당했을 때에는 매파처럼 행동하고, 비둘기파를 만났을 때에는 비둘기파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보복파는 조건 전략자이다.

또 하나의 조건 전략자는 ‘허풍파’이다. 허풍파는 누군가가 반격해 올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매파처럼 행동한다. 반격을 당하면 즉시 도망친다. 또 다른 조건 전략자는 ‘시험 보복파’이다. 시험 보복파는 기본적으로는 보복파를 닮았으나 때로는 다툼을 조금 실험적으로 확대시켜 본다. 그리고 상대가 반격을 가하지 않으면 이때 매파형의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만약 반격을 당하면 비둘기파처럼 위협만 하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의 보복파와 똑같이 보복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금까지 말한 다섯 개의 전략자 모두를 서로 자유로이 행동하게 하면 보복파만이 진화적으로 안정됨을 알 수 있다. 시험 보복파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비둘기파는 그 개체군이 매파와 허풍파의 침략을 허용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매파도 그 개체군이 비둘기파와 허풍파의 침입을 허용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상의 이론상 결론은 야생 동물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도 동물의 한 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피하는 종족이라는 측면에서 상기한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인간들이 일견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종류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이 전원 의식적으로 장래를 예견하고, 그 협정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 자기의 장기적 이익에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원자와 같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운동하고 서로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는 자기보존의 충돌만이 가꾸어지고 그에 따라 자기보존은 타인에 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도사린 원리는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각자는 자신의 안전이나 권력에 관계되는 것만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며, 타인은 이 점에 영향을 끼칠 때만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 개개인은 힘이나 교활성에 있어 대체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시민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데 홉스는 한편으로 인간이란 인간 욕망의 원천인 생명력을 장기적으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본성적 요소로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성조차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이기적 행동동기와 별개의 측면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자기보존의 보편적인 법칙을 계속 따르되, 안전보장의 추구를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규제적 통찰일 뿐이다. 곧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적대감을 낳는 성급한 탐욕뿐 아니라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된 이기심 또한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계산된 이기심의 결과 인간은 각 개인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성원의 합의나 규칙의 준수 혹은 심지어 이타적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개인적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예상 혹은 계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홉스의 견해는 비록 권력구조상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군주제적인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는 이론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개인들의 계산된 이기심들의 계약에 의해 간신히 결속된,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갖는 국가로 계약된 홉스의 국가는 내용적으로 개별적인 이기심의 총합을 반영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적 개인들의 강권을 통한 상호 계약적 공존이야말로 이기적 인간본성들의 사회화를 위한 최선의 길, 즉 자연 상태에서부터의 최대의 구체책이자 목표로서의 자기보존의 실현인 것이다.

2. 아래의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가 왜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 (1,200-1,500자, 60%)

<조건>

1. 두 제시문에서 욕망을 절제해야 할 이유를 각각 이끌어 낼 것.
2. 이끌어 낸 이유를 선택적, 혹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

<제시문 가>

“그런데 자네는 내가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물었네.
“어떤 것인데요?”

“욕구들의 문제인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구별해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네.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세. 불필요한 쾌락들과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엔 불법적인 것들이네. 이것들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이성을 동반한 더 나은 욕구들에 의해서 억제됨으로써,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없어져 버리거나 소수가 약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강한 상태로 더 많이 남아 있네.”

“그런 것들로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요?”

“잠들었을 때 깨어나는 욕구들일세. 영혼의 다른 부분이, 즉 이성적이고 유순하며 지배하는 모든 부분이 잠들 때면, 짐승 같고 사나운 부분은 잔뜩 먹고 마시고서는 발딱 일어나 잠을 물리치고 나가서는 제 기질을 충족시키려 피하지. 그런 때에 그것은 일체의 부끄러움과 분별에서 풀려나고 해방된 터라, 무슨 짓이든 감행한다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네. 그것은 상상하게 되는 데 따라 어떤 것과도 간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누구든 살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거나와, 어떤 음식이든 삼가는 일도 없다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리석거나 파렴치한 짓을 빼놓지 않고 저지른다네.” 내가 말했네.

“더없이 진실 된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건전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처신할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헤아리는) 부분을

깨워서, 훌륭한 말들에 비추어 보고 진지하게 사려하고, 홀로 명상에 잠기게 하는 한편으로, 욕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람도 충족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이 잠들게 되어, 그것의 기쁨이나 고통으로 ‘최선의 부분’에 소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없게 하며, 이 부분이 자체로 혼자 생각을 하게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또는 미래의 것이든, 동경하며 지각하게 되도록 하네.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걱정적인 부분을 진정시킴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격분하게 되어 격앙된 상태로 잠드는 일이 없도록 하네. 그가 이들 두 부류는 안정시키는 한편, 앞의 셋째 것, 즉 지혜로움이 거기에 깃들게 되는 부류는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처럼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는 진리를 가장 잘 파악하게 될 것이며, 그의 꿈속에 나타나는 환영들이 그 때에 가장 덜 불법적인 것들일 것이라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네.” 내가 말했다.

<제시문 나>

고통이나 불행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 생활을 늘 위협해 왔다. 병이나 죽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육체 때문에 생기는 고통도 있고, 자연의 폭력이나 재해처럼 밖에서 오는 고통도 있다. 또한 이해관계에 의한 다툼과 같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도 있다.

인간은 불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비겁해지며, 쾌락에 대한 욕구를 단념하고 애써 불행만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소극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가령 원시 시대부터 분별없이 여러 여자와 즐기는 쾌락을 단념하고 일부일처제나 근친상간의 금기(禁忌)를 만들었으며 아버지의 상속권을 독점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형제간의 계약을 만들기도 했다는 가설은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문명과 더불어 쾌락은 감소되지만 평화스런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엄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즉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조정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는 ‘현실 원칙’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현실 원칙’에 따름으로써 단념할 줄 알고 이성을 발달시켜 법률이나 도덕이나 질서나 그 밖의 모든 정신문화를 구축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쾌락 원칙’에 지배되지만, 일상생활의 세계나 인식의 세계에서는 ‘현실 원칙’에 얽매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려 한다면 사회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마저 망가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은 내일을 위해 기쁨을 간수해 둔다고 하며, 얼마쯤의 처세법을 알고 있고 기대 속에 산다는 얼마간 고급스러운 복잡한 즐거움도 알고 있다. 꾸준히 저금을 하여 집을 짓는다든가, 3시까지 간식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결혼 초야까지 처녀를 존중한다든가, 출세를 위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고생을 맛본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즉석의 만족이 아니라 유보된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의 결과이며 조심스런 ‘현실 원칙’의 결과이다.